

사설

조계사 짓누르는 고층빌딩

모든 가치의 기준을 경제적 부에 두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단순한 경제 행위만을 가치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 새 시대의 안목이다.

그래서 그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역사와 문화 자체가 외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재충전의 좋은 기회를 부여함을 깨닫고 문화유산의 발전과 보호, 정비에 각국이 힘을 쓰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1700년 동안 우리 민족을 향도해 온 불교계가 지니고 있는 역사와 문화 그 자체가 나라의 부와 도 직결된다고 전문가들은 역설한다.

조계사는 옛 이름이 각황사였으나 한국불교의 전통 법맥을 계승하기 위해 일제에 항거하며 태고사로 이름을 고쳐 부르고 근대에는 조계사가 되어 오늘의 한국불교를 이끌고 있는 한국 불교 상징이다.

조계사는 청와대와 정부청사 등 우리나라의 모든 행정부와 사법부 그리고 입법부와 언론 및 다른 나라 대사관들이 모여 있는 서울 한복판에 자리 잡아 오고 가는 모든 이에게 편안한 휴식과 함께 민족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을 일깨워 주는 교육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그런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민족의 자긍심을 함양하는 근근도량이며 전통사찰인 조계사 대응전 바로 앞에 24층 높이의 고층건물을 짓는다니 참으로 개탄할 일이다.

조계사 일대는 불교 유적뿐 아니라 개화기의 역사유물인 우정총국과 영국여왕 등 세계의 국가 지도자들도 한탄씩 관심을 가지고 다녀가는 인사동 등이 인접해 있는 전통문화의 거리이다. 또 최근엔 조계사를 찾는 외국관광객도 크게 늘고있는 실정이다.

건축법상의 최소한 허가요건만을 충족해 허가를 내준 것인데 차체에 문화재 바로 옆 50m라는 법규정도 현실을 감안해 대폭 손질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경과로 보면 520세대가 들어서 살게 될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조계사의 수행공간과 전통문화의 거리가 크게 훼손될 것이 분명하다.

당국은 성의 있는 대책을 마련, 전통문화를 보존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지역에 뿌리심는 시민운동

불교의 사회화를 외쳐온 지 몇 년, 그것이 구호에 그치지 않았다면 이제 당시실상부하게 불교계의 시민운동 사회운동이 정착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불교계의 사회화를 위한 회향이 점차 확산되어가고 있는 추세이고, 불자들의 의식도 전에 비할 수 없이 깨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러한 움직임이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한계를 가지면서,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통해 전국의 각 지역에 뿌리를 내리는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지리산 살리기 운동 등 몇몇 움직임을 빼면 거의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운동의 한계를 지닌다는 뼈아픈 지적을 받아야 했던 것이 불교 시민운동의 현주소였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성오에서 '청정과 화합의 사회를 가꾸는 모임'을 설립하기로 결의했다.는 소식은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나의 지역사회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불교 시민운동이기에 반가

운 점도 있지만, 그것이 부산에서 일어난다는 점에도 의미가 있다.

부산은 중심으로 한 경남권은 전국 어떤 곳보다도 불자의 비율이 높으며, 또 뜨거운 신앙심을 자랑하는 곳이다. 그러면서도 그러한 불교의 교세에 비하여 그 사회적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보수적 신앙에 머무르는 곳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곳이기도 하다. 그러한 부산에서 이러한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은 불교 시민운동이 진정 지역에 뿌리를 내리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신호이다.

부산 지역의 뜨거운 신앙심에, 부처님의 자비를 사회로 확장하는 지혜의 눈이 더해진다면 그 힘이 어떠한 것인가? 불교계 전체를 새롭게 바꾸는 큰 힘으로 성장할 것이기에 큰 기대를 해도 좋지 않을까 싶다.

승가와 재가를 연합하여 올바르게 시민운동을 펼쳐가겠다는, 또 전 시민운동의 영역에 걸쳐 광범한 운동을 펼쳐가겠다는 이 모임의 뜻이 올바르게 펼쳐진다면 우리들의 이러한 기대를 넘어서는 큰 힘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정재 유실뎌 민·형사 처벌”

조계종 ‘사찰예산회계법’ 제정 추진

1일 종회서 의결...재정사고 방지 기대
매월 사찰명의 통장잔고 증명서 발급

재정사고 등 고의적으로 사찰에 재산손실을 입힌 행위자에 대해 총무원장이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가칭) 사찰예산회계법이 11월 1일 개최되는 제 152회 조계종 정기중앙총회에서 입법 추진된다.

사찰명의의 통장과 인장은 관리 책임자를 분리하여 관리하고, 주지는 매월 1회 사찰명의 통장잔고 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이 입법화 될 경우 그동안 몇 차례 발생한 사찰의 공금횡령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획기적인 조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찰의 예산 편성, 집행과 결산 및 이에 따른 회계처리 사항을 정하여 사찰의 효율적인 재정운용 실현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가칭) 사찰예산회계법(안)은 교구본사가 본 말사의 세입세출예결산서를 취합하여 12월 말일까지 총무원 제출토록 규정(안) 16조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사찰에서 실시(1년 이내) 차입금 사용 시 사유 및 금액, 상환방법, 기한 등을 명시하여 교구본사 총무원회의 결의를 얻도록(안) 6조 했다. 결의를 얻지 않은 차입금 사용은 무효로 하여 후임주지가 승계하지 않는다.

또 사찰은 매월 말 결산을 다음 달 5일까지 완료하여 현재표를 작성

성한 20조하고, 회계처리는 총무원에서 지정하는 전산프로그램을 활용(안) 12조해야 한다. 결산서에는 교역직·일반직 총무원 인원 및 급여·보시 현황표, 부동산 처분금 사용 내역서, 미수금 명세서, 부동산(토지, 건물 등)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명세서, 차입금, 적립금 및 대여금 명세서, 기타 현재의 재산상태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안) 21조토록 했다.

공용수용 등에 의한 대토의 경우 총무원의 승인을 받아 사중으로 수입된 부동산 처분금은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대토용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주지 재임기간중 대토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후임주지에게 대토용 보관금 액 전액을 인계(안) 26조하도록 밝히고 있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pa.com

종강연수회 11월19~20일
교육원 순회강의도 결정

교육원은 23일 종회사무처 회의실에서 지방승가대학 학장회의를 열고 11월19~20일 서울 안암동 보타사에서 종강연수회를 개최키로 했다.

강원 순회강의는 삼선승가대학의 경우 이달 27일까지 불교학개론에 대한 강의를 마친 뒤 11월 18~11월 25일까지 유식과 불교인도사에 대한 강의를 진행키로 했다. 또 봉영사 순회강의는 11월중에 하기로 결정했다.

한명우 기자

현대만평 박구원

조금 지나면 이렇게 되겠네

불교유아교육과 단과제 요구

동국대 재학생 ‘불교아동과’와 병립안 반대

동국대 유아교육학과 신설에 대해 일부 졸업 및 재학생 스님들이 ‘불교’자를 떼었다는 항의에 학교 측이 불교아동학과 유아교육과 양립제도를 발표하자, 이번엔 불교아동학과 재학생과 동문들이 양립 불가론을 내세우고 나섰다.

불교아동학과 180여 재학생들은 10월 24일 서울캠퍼스 상경총장 면담과 집회를 갖고 불교아동학과·유아교육학과 양립 반대

를 천명하고 ‘불교유아교육학과’ 단일과 체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송 총장은 “올해에는 불가능한 일이다”며 “내년에 최선을 다해 불교유아교육학과로 명칭을 변경을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두 개의 양립은 불교아동학과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올해 안에 불교유아교육학과로의 재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김준근 기자

동국대 발전·예산안 요구
조계종 총립학교 관리위

조계종 총립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 박구원)는 22일 제 35차 회의를 개최하고, 동국대에 학교발전안, 올해 결산자료, 내년 예산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총립학교관리위는 이날 회의에서 김선근 법인사무처장을 불러 보고를 받은 뒤, 동국대가 9월 24일 중앙일보 대학순위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은 재정난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이 결의했다.

김원우 기자

진각종 총본산 건립한다

연말까지 부지선정...복지타운·박물관도

종조탄생백주년사업 확정

불교진각종이 종조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시행에 들어간다.

효암 통리원장이 기념사업회장을 맡는 회당대중사 1백주년 기념사업은 그동안 검토해온 사업의 세부적 안이 19일 종의회 인준을 거쳐 확정 발표했다. 이번에 확정된 사업은 전 집행부가 추진해온 사업을 계승하면서(사업안은 지난 1월 발표) 종단 안팎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우선 진각종은 21세기를 맞아 미래지향적 종단의 중심점을 마련하기 위해 총본산을 마련하기로 했다. 올 연말까지 부지가 선정될 총본산은 향후 종인 주석처와 선대스승 추모전, 기로원, 밀교사 박물관 등이 건립되는 진각공동체가 될 전망이다.

기념사업은 전문위원회별로 세부안을 마련 △종책기획 △포교교육 △문화복지 △교법종

학 등으로 추진한다. 종책기획 사업은 회당대중사 탄생100주년 기념관 건립, 선대스승 추모전, 남달당 건립, 종단 4대성지 정비 등 대규모 사업을 장기적으로 추진한다. 포교교육 분야는 포교백서 발간, 진각대학교 설립, 2002년 한일월드컵 성공기원 범불교도 어울림 한마당 등 참여와 화합의 불사를 추진한다.

문화복지사업은 △진각종 소리 통일화, 서원가 아카데미 설립, 영상물 제작, 회당문화축제, 탈북자 정착지원, 평양컴퓨터교습소 개설, 종합복지타운 ‘농림촌’ 설립 등이다. 또 교법종화 분야는 진각50년사 발간, 국제학술회의, 밀교의식시현, 회당종조법어 사경대회 등을 추진한다.

회당대중사 탄생 100주년 기념 사업은 참여·화합·회향 불사로 총 46개 세부사업이 확정되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경숙 기자

진각종 내년예산 1백75억 확정

진각종 내년도 예산이 175억7천5백만원으로 확정됐다. 진각종 종의회(의장 유희영)는 20일 제327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총리원 교육원 등 각부 예산을 심의, 지난해 보다 11억8천7백만원이 증액된 175억7천5백만원으로 확정했다. 또 올해 추경예산 5억5천만 원도 원안대로 승인했다. 내년도 통리원 예산은 129억 9천3백만원, 교육원은 8억7천2백만원, 제시스

승들의 후생사업에 쓰는 예산 7억 1천2백만원 등이다.

내년도 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관리운영 19억3천만원 △문화관광 7억3천4백만원 △포교관리 6억7천8백만원 △선설수리 13억원 △회당대중사 탄생 100주년 관련 사무국 예산 2억4천2백만원 등이며 교육원은 △관리운영 9억5백만원 △교법사업 3억2천3백만원 △교육사업 1억8천7백만원 등이다. 이경숙 기자

소청심사위원장 청우스님

조계종 소청심사위원회는 22일 회의를 갖고 위원장에 청우스님(등명낙가사 주지)을 선출했다.

위원장 청우스님은 “소청심사를 활성화 하여, 종단에서 억울하게 징계 받은 스님들의 구제에 노력하겠다”며 “사면 건은 종회에서 먼저 선결처리 되어야 하는 사항이지만 적당한 시기가 되면 98년 사면에 대한 검토도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김원우기자

통도사 종회위원 초현스님

통도사는 17일 종회위원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신임 종회위원에 단독 입후보한 초현(超玄)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초현스님은 75년 통도사 승가대학 대교과를 졸업하고, 90년 동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을 수료했다. 83년 95년 통도사 교무국장, 95년 양산 청소년 교화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경봉장학회 이사과 학림사 주지를 맡고 있다. 김원우기자

대한불교 조계종 제11교구 본사

불국사 대구 포교당 금강삼매원

삼존불 점안 및 개원법회

귀의 삼보 하옵고
향기 구름으로 도량을 장엄하니
여래께서 오색(五色)광명의 우담바라를 피우시도다
법륜을 굴리시매 삼신이 광명속에 현출하사오니
삼계의 중생이 모두 이익하오며
원수거나 친한이나
두루 보리심을 내어지이다!

- 금강삼매원 - 석호 삼배

일시 : 불기 2545(2001)년 11월 5일(월) 오전 10시
장소 :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동 10의 3 (달성네거리)
전화 : (053)561-4714